

# 大學教育과 環境

鄭 元 植  
(서울大 教育學科)

大學에서의 教育環境이 학생들의 知的 成長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性格, 情緒, 價値觀 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즉 大學의 環境條件이 大學생의 情意的인 특성을 변화시킬 可能性이 있다는 점에서도 論議의 여지가 없다.

## I. 環境의 意味

教育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環境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教育 環境에 대한 연구는 물론 論議조차 극히 제한되어 왔다는 것은 잘 納得하기 어려운 일이다. 특히 大學의 環境에 대해서는 몇 년 전에 大學環境尺度를 利用하여 大學環境의 診斷을 위한 몇 편의 연구가 있었을 뿐 學界의 논의조차 활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環境의 概念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또는 그것이 사용되는 경우에 따라 각기 달리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或者는 環境의 개념을 自然의 景觀으로 이해하고, 어떤 경우에는 學校의 시설이 環境의 全部라고 생각하며, 또 사람에 따라서는 環境에 있어서의 분위기 또는 風土를 강조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하는 環境의 의미는 보

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구태여 定義를 내린다면 그것은 “個人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外的 條件과 要因의 總合”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環境의 의미를 규정한다면 그것은 물론 自然景觀이나, 物理的인 施設이나, 機關의 분위기만을 뜻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점에서 環境은 物理的인 側面과 社會·心理的인 側面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環境의 개념을 규정하는 定義에서 外的 條件과 要因의 總合이라는 말로 表現하였다.

環境의 개념에서 또 한 가지 注目할 것은 環境의 主體가 個人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客觀的인 環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環境條件을 主體인 個人이 어떻게 知覺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環境의 定義에서 “個人에게……”라는 말을 사용한 까닭은 바로 個人의 主體性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생각하면 同一한 環境 조건이

라고 해서 그 환경 조건에 접해 있는 모든 개인에게 동일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다. 개인의 知覺如何에 따라 동일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의미는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심리학자 머레이는 환경이 주는 壓力을  $\alpha$  壓力과  $\beta$  壓力으로 구분하였는데, 여기에서 개인의 主體性을 강조하는 것은 머레이의  $\beta$  壓力과 유사한 개념이다.

環境條件이 개인의 成長과 發達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새삼 논의할 필요가 없다. 특히 人間形成過程에서 어린 時節의 환경조건이 미치는 영향은 가이 절대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關心의 대상이 되는 것은 大學環境이 學生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大學生의 年齡으로 보아 이미 상당한 정도의 發達을 成就한 후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들이 환경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느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研究가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넓은 의미의 大學環境이 學生들의 知的 成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性格, 態度, 價値觀 등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大學의 환경 조건이 大學生의 情意的인 特性을 변화시킬 可能性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구체적 연구 결과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大學을 지배하는 분위기와 大學의 物理的 환경 조건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어떤 특징을 形成시켜 주는 事例를 여러 大學에서 볼 수 있다. 같은 四年制 綜合大學校 중에서도 大學에 따라 그 분위기가 크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경우 교육 운영이나 교육 내용의 차이에서라기보다도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一般大學과는 다른 特殊한 目的을 가지고 있는 大學의 경우에도 독특한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은 다른 어떤 조건보다도 역시 환경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士官學校가 그러하고 海洋大學이 그러하다. 이러한 特殊大學의 분위기는 그 大學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태도에 적지 않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共同生活을 하

는 寮宿舎의 환경 조건은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한 正規敎育의 영향보다도 더 큰 것으로 밝혀져 있다.

## II. 大學環境의 問題點

우리나라의 大學環境에 관하여 몇 가지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꼭 문제점이라기보다도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라고 할 만한 일이다. 적어도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 1. 大學 캠퍼스의 크기

大學의 環境條件으로서 시설이나 社會的 분위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논하기 이전에 大學 캠퍼스의 크기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환경 조건이다. 大學 캠퍼스가 좁다든가 또는 넓다는 말로 表現되는 그것이다. 그러기에 이것은 學生들의 物理的인 生活空間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大學 캠퍼스를 보면 일반적으로 캠퍼스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바람직하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印象받게 된다. 그러한 경향이 근자에는 거의 경쟁적으로 나타나서 大學의 캠퍼스는 더욱 넓어지고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을 관찰하게 된다. 불과 몇만 명의 부지밖에 되지 않던 대학들이 새 캠퍼스를 마련하면서 수십만 명의 부지를 확보하고 웅장한 캠퍼스를 건설하는 현장을 흔히 목격하게 된다.

이렇게 넓은 면적의 캠퍼스를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협소한 空間보다도 넓은 空間이 훨씬 시원하고 開放的인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 삼으려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의 크기가 大學 캠퍼스로서 適正規模인가 하는 문제이다. 大學 캠퍼스의 크기도 學生數와 시설규모 등에 따라 適正規模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지 않다.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렇게 본다면 캠퍼스의 크기는 클수록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크기가 대학 캠퍼스로서 適正하다는 일종의 規準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를 찾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大學設置基準令에도

그러한 適正線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大學 建物의 5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分明한 것은 현재 여러 大學에서 새 캠퍼스를 건설할 때에 확보하고 있는 규모의 캠퍼스 부지가 요청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美國의 일부 대학을 除外하고는 世界의 우수한 大學이 그렇게 넓은 면적의 캠퍼스 부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도 그 점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캠퍼스의 크기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가? 캠퍼스의 크기를 규정해 주는 명백한 기준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는 캠퍼스의 크기를 정할 때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첫째는 綜合大學으로서의 有機的 機能을 고려하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캠퍼스의 크기가 지나치게 크면 大學의 施設이나 教育運營이 單科大學 中心이 되기 마련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 綜合大學으로서의 教育 기능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自明한 일이다.

둘째는 建物間의 通行時間을 고려하는 일이다. 단적으로 말하여 캠퍼스의 한쪽 끝에서 다른 한쪽까지 徒步로 10분 이상을 소요한다면 效率性을 극대화할 수 있는 캠퍼스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는 거리라면 도보 이외의 通行手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세째는 캠퍼스내에 있는 모든 建物의 狹小感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消化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첫째와 둘째의 기준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 調和點을 찾는다는 것도 어려운 과제이다. 첫째와 둘째 기준에만 의한다면 캠퍼스의 크기는 되도록 크지 않아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세째 기준은 되도록 캠퍼스의 크기가 커야 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適切한 타협점을 찾아야하는 것이다.

요컨대 캠퍼스의 크기를 되도록 넓게 잡으려고 하는 일반적인 경향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일이다.

## 2. 大學 캠퍼스의 雰圍氣

大學 캠퍼스의 분위기는 大學環境의 心理的인

側面을 대변하는 것이다. 어느 大學의 캠퍼스를 방문해 보아도 그 캠퍼스 나름의 분위기가 있기 마련이며 그러한 분위기는 그 캠퍼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태도와 價値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 점에서 大學의 분위기는 大學環境條件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大學環境으로서의 분위기를 測定하고 評價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로 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心理的인 현상이기 때문에 直接的인 測定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데에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분위기의 概念도 분명하게 정해진 것을 찾기가 어렵다. 사람에 따라서 概念化와 分類가 각기 다른 것도 그러한 어려움 때문이라 할 것이다.

페이스는 大學環境尺度(CUES: College and University Environment Scales)를 제작하였는데, 그 尺度에서는 大學의 心理的 環境을 다섯 개의 下位要因으로 概念化하고 있다. 즉 實用性, 共同社會性, 自覺性, 禮節性, 學究性이다. 또한 무즈 등은 大學生活環境尺度(URES: University Residence Environment Scale)를 발전시켰는데, 거기에서는 10개의 下位尺度를 제시하고 있다. 相互關係性, 情緒의 支援, 自主性, 社交性, 競爭性, 學業成就, 知的 探究性, 秩序, 學生의 影響, 革新性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환경의 概念化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接近이 시도되고 있으나 대체로 보아 세 가지 側面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人間關係에 관련된 분위기이며 다른 하나는 個人의 成長과 發達에 관련된 條件이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機關과 組織의 유지와 發展에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側面은 우리나라 大學의 분위기를 검토하고 評價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人間關係의 側面에서 보면 大學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어떤 大學의 분위기를 보면 學生 相互間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어서 比較的 응집력이 강한 반면, 그렇지 못한 大學의 분위기도 쉽게 발견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大學의 規模와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大學間에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斷定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몇 가지의 傾向은 확실하다고 지적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중에서도 比較的 뚜렷한 경향은 어느 大學을 막론하고 個人主義的, 利己의 性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 캠퍼스의 응진력은 쇠박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향은 師弟間의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大學의 支配的인 분위기는 전통적인 師弟間의 관계에 의해서 크게 영향받아 왔다고 할 수 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전통적인 관계는 우리나라 大學의 特殊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作用을 해왔으며, 사실 그것이 우리나라 大學의 가장 큰 特徵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전통적인 師弟間의 관계는 근자에 이르러 점차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師弟關係의 變化는 大學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종래에 볼 수 있었던 尊敬과 尊重的 特徵은 師弟關係에서 점차 사라지고 平面的인 관계로 변모하고 있으며, 그것은 大學의 분위기에서 禮節性이나 長幼間의 질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大學環境의 두번째 側面인 個人的 成長과 發達이라는 면에서 볼 때 문제삼아야 할 것은 知的 風土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과 自發的이고 能動的인 學究의 분위기가 극히 미진하다는 점이다.

역시 일반적인 관찰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大學의 캠퍼스에서 양성한 知性的 분위기를 찾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大學의 知的 분위기는 주로 學生들의 知性的인 서클활동이나 學生들의 非形式的인 對話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 大學 캠퍼스에는 여러 모양의 理念的인 서클이 있기는 하나 순수한 知性的 서클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기가 어려우며, 學生들의 非形式的인 對話에서 學問的인 토론이나 知性이 번뜩이는 對話의 場을 찾기가 어렵다는 데서 그러한 印象을 받게 된다.

大學의 學究的 분위기에서 自發性과 能動性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도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일이다. 본시 學問은 自發的이고 能動的인 태도와 動

機를 必要로 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캠퍼스에서 느껴지는 一般的 傾向은 受動的인 學習이 지배적이라고 할 것이다. 오랜 동안 注入式 敎育만을 받아들인 결과 그렇게 되었다고 판단되나, 하여간 能動的인 學究의 분위기가 미진하다는 것은 크게 문제삼아야 할 일이다.

大學의 心理的 環境을 구성하는 세번째 側面으로서 機關과 組織의 유지와 發展에 관련된 분위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側面은 단적으로 말하여 機關과 組織이 硬直性을 탈피하고 새로운 變化를 받아들일 수 있는 開放性의 意味를 중요하게 包含한다. 물론 이 側面에 포함되는 다른 要因이 적지 않으나 역시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要因은 革新을 허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開放性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大學 캠퍼스를 지배하는 분위기를 인상적으로 判斷해 보면 새로운 革新을 받아들일 수 있는 開放的인 분위기가 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좀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분위기는 硬直되어 있다고 해도 결코 지나친 表現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制度的인 면에서 그러하고 行政的으로 그렇기 때문에 大學의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는 느낌을 준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며, 대학의 운영자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일이다. 大學은 약동하는 生命體로서의 발달함과 發展을 위한 革新이 언제나 쉼없이 해야 할 일이다.

### 3. 大學의 物理的 施設

大學環境을 論議함에 있어서 物理的인 시설에 대하여 言及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物理的인 시설은 大學環境을 대변하는 變數로 간주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대개의 경우 캠퍼스의 自然景觀이나 物理的 施設은 캠퍼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環境에 대한 特定한 印象을 주게 된다. 뿐만 아니라 物理的 施設은 캠퍼스의 心理的인 분위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雄壯한 建物이 즐비한 캠퍼스에서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게 되며, 古色이 창연한 시설과 건물에서 傳統을 印象받게 된다. 이 점에서 大學의 物理的인 시설은 環境 구성에 있어서 역시 우선 순위를 가지는 條件이 된다.

環境이라는 觀點에서 우리나라 大學의 物理的 施設을 實物적으로 評價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大學間의 차이도 클 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大學 캠퍼스를 除外하고는 環境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캠퍼스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大學 캠퍼스의 發展을 위하여 몇 가지 문제점은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物理的 施設의 劃一性和 單調로움을 들 수 있다. 大學은 그 本質로 보아 多樣性을 표방하는 것이 當然하다. 大學은 多樣한 學問分野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多樣性을 調和하는 極致를 社會에 보여 주어야 할 位置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大學의 本質的인 性格은 大學 운영의 實際에 反映되어야 함은 물론 특히 物理的 施設面에 投射되어야 한다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大學 캠퍼스에서는 그와 같은 多樣性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인상이다. 多樣한 建物이 하나의 調和를 이루는 캠퍼스를 찾기가 어려우며, 그러한 연고로 大學의 物理的 시설은 單調로움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物理的 시설에 관한 한 우리 大學의 캠퍼스는 칼라가 缺如되어 있다는 것은 필자만의 印象은 아닐 것이다.

둘째로 大學의 知的 風土를 造成하기 위한 배려가 되어 있지 못하다. 大學은 知的 분위기를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산으로 삼아야 함은 물론, 그와 같은 知的 風土를 형성하기 위하여 物理的 施設을 충분히 活用해야 된다는 것은 大學 캠퍼스의 레이아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大學의 物理的 施設은 무게

있는 知的 분위기를 연출하기보다도 오히려 反知的인 印象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여러 大學의 경우이지만 캠퍼스에 들어서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운동장이다. 물론 大學에는 운동장이 필요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운동장이 필요한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大學에서 처음 목격하게 되는 시설은 운동장이기보다도 知的을 상징하는 建物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知的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物理的 시설에 대한 배려가 充分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약관 30대에 시카고 大學의 總長이 된 로버트 헛친스가 제일 먼저 한 일 중의 하나가 축구장을 없애는 일이었다는 것을 理解할 만하다.

셋째로 우리나라 大學 캠퍼스에는 學生들의 生活 터전을 제공하는 大學村이 形成되어 있지 못하다. 大學 캠퍼스는 원칙적으로 學生들을 끌어 들일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學生들의 生活 터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그것이 캠퍼스 안에서는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캠퍼스 주변에 大學村을 형성해서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一般的인 형태이다. 大學村은 그 고유의 기능에 의해서 學生들에게 오락의 기회만이 아니라 宗教活動, 學究的 討論, 日常生活 등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歐美 여러 나라의 大學 캠퍼스에서 볼 수 있는 大學村은 바로 그와 같은 生活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캠퍼스는 學生들을 끌어 들일 만한 環境條件으로서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고 할 것이다. \*